

## 한영 뉴스 번역자의 텍스트 개입 양상에 관한 고찰

홍 정 민  
(이화여대)

### 1. 서론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G-20 정상회담 개최 등 대형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은 국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왔다. 이처럼 뉴스 소재로서 한국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어 뉴스의 외국어 번역물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각 언론사들은 한국어로 된 자사 뉴스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외국어로의 뉴스 번역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는 언어는 영어로, 현재 국내 최대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는 물론 2012년 국내 발행부수 5대 신문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sup>1)</sup>와 한겨레신문이 자사의 한국어 뉴스를 영어로 번역(이하 한영 뉴스 번역)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sup>2)</sup>.

1) 한국 발행부수공사(ABC) 협회 2013년 11월13일 발표 통계.

2) 그 다음으로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는 언어는 중국어와 일본어로, 2014년 1월 기준으로 한중 번역 서비스는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이처럼 한영 뉴스 번역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 번역학계에는 한영 뉴스 번역 현상을 본격적으로 고찰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국내 대표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와 디비피아(www.dbpia.co.kr)에서 “뉴스 번역”, “기사 번역”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뉴스 번역 가운데 한국어→일어(박미정 2011; 이주리에 2010/2012)과 한국어→중국어(강수정 2011, 2013; 황은하 2013; 이호봉 2013), 한국어→아랍어(이계연 2012) 등에 대한 연구는 다수 발견되었으나, 한영 번역에 대한 연구는 영어→한국어 번역 또는 한국어→일어 번역과 함께 연구의 일부로 포함된 경우(이미경 2011; 신진원 2013; 박미정 2013a/2013b)만 찾을 수 있었다. 실무 현장에서 한영 뉴스 번역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관련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처럼 관련 연구의 양적인 공백을 메운다는 점 외에 한영 뉴스 번역 연구는 미디어업계의 경쟁 심화와 환경 변화에 직면한 언론사들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언론학까지 아우르는 다학제적인 가치를 지닌다. 오늘 날 각 언론사들이 수익 창출 기반 확보를 위해 사업 다각화에 힘쓰면서 특히 인터넷 등 뉴미디어 사업으로의 진출이나 확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박정래 2005: 22),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어로의 뉴스 번역 서비스 역시 이러한 다각화 영역 중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국어로의 뉴스 번역물 품질 및 관련 서비스의 성패에 텍스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목표 독자에 대한 고려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몇 건의 해외 연구 결과<sup>3)</sup>를 감안할 때 한영 뉴스 번역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작업은 번역학은 물론, 언론학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기반, 한국 언론사의 한영 번역자들이 텍스트에 개입하는 양상을 세부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가, 한일 번역 서비스는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가 제공하고 있다.

3) 발데온(Valdeon 2005a/b) 참고.

첫째, 한영 뉴스 번역자들은 어떠한 번역 전략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텍스트는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둘째, 이러한 번역 전략과 텍스트 변형 양상은 한영 뉴스 번역자의 개입 및 역할과 관련해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한영 뉴스 번역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확산 등으로 오늘 날 신문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신문사들 역시 경영지표 약화에 직면하고 있다(김관규, 김충식 2009: 227; 김영주 2005: 11). 이런 가운데 돌파구로 모색되고 있는 것이 신문발행, 광고사업과 같은 전통적인 언론내적 사업영역에서 인터넷, 전광뉴스, 뉴미디어, DB 등의 통신 또는 미디어 사업, 타사 또는 타기관 신문류, 간행물, 책자, 유인물 등의 인쇄 사업 등 새로운 언론외적 사업 영역으로의 사업 다각화다(정동희 2008, 11-12). 현재 한국의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영어로의 뉴스 번역 서비스가 모두 지면이 아닌 인터넷으로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영 뉴스 번역 서비스 역시 이러한 사업 다각화 영역으로 크게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영어 외에 다양한 언어로도 뉴스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중국어와 일본어, 매일경제는 중국어로 자사 뉴스를 번역해 제공하고 있으며, 연합뉴스는 이들 언어는 물론 스페인어와 불어로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상태다. 이처럼 외국어로의 뉴스 번역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번역학계에는 해당 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외국어로의 뉴스 번역 서비스에서 번역자의 개입은 관련 서비스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

4)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뉴스 번역은 국제면 등 발행되는 신문의 지면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문발행 사업, 즉 언론내적 사업 영역에 속한다(홍정민 2013: 253).

는 연구 주제다.

실제로 발데온(Valdeon 2005a/2005b)은 CNN의 스페인어 웹사이트(CNN en Espanol)와 BBC의 스페인어 웹사이트(BBC Mundo)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목표 독자에 대한 고려에 기반한 번역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TT의 품질과 번역 서비스의 성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들 사이트가 ST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목표 독자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TT를 생산했으며 CNN 스페인어 웹사이트의 경우 2004년 9월 폐쇄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CNN의 독일어 웹사이트 역시 비슷한 이유로 2004년 서비스가 중단되었다(Valdeon 2005b: 266). 발데온(ibid.: 266)은 이들 서비스에서 번역자들이 원천 문화와 목표 문화 간 이해를 활성화시키는 “중재자(mediator)”가 아니라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중개인(intermediary)”의 역할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면서 번역물의 품질에 번역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크게 영향을 미침을 시사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영 뉴스 번역 연구 가운데서도 특히 텍스트 개입 양상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 2.2. 뉴스 번역의 특수성과 번역자의 개입

뉴스 번역자의 텍스트 개입 양상은 다른 분야의 번역과는 크게 차별되는 뉴스 번역이라는 현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뉴스 번역에서는 ST에 대한 충실성이 문학과 같은 다른 텍스트 번역에 비해 절대적이지 않다. 뉴스 번역의 핵심적인 목표는 정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독자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달성하는 데 있기 때문에 원천텍스트(ST)는 목표 텍스트(TT)가 게재되는 매체의 규칙과 관행에 따라 새로운 맥락에 적절하게 개작되며, 이 과정에서 ST는 대대적인 수정을 거치면서 ST와는 완전히 다른 TT가 생산된다(Bielsa & Bassnett 2009: 63).

따라서 뉴스 번역에는 하나의 언어로 된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그대로 옮기는 ‘본원적 번역(translation proper)’보다 개작, 재구성과 같이 좀 더 과감한 ‘개입(intervention)’이 자주 나타난다. 비엘자와 바스넷(Bielsa & Bassnett 2009: 63)은 뉴스 번역 과정이 모도를 위해 뉴스 기사를 검토, 교정, 수정, 윤문하는 편집(editing) 작업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뷰오리넨(Vuorinen 1995: 170)의

경우, 번역을 편집 혹은 기사의 생산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뉴스 번역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편집, 개작 등도 번역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스넷(2004)도 뉴스 통신사를 통해 정보가 변형되고 편집되고 종합되어 다른 문화로 전달되는 과정도 여전히 번역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국제 뉴스 번역에 대한 논의에서 번역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에는 뉴스 번역에 개입되는 다양하고 과감한 텍스트 개입 전략들을 번역과 편집의 조어인 편역(trans-editing)(Stetting 1989)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학자들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편역은 목표 신문의 성향과 목표 독자의 수요 및 흥미에 맞게 ST를 변형시키는 과정으로 선택(selection), 삭제(deletion), 첨가(addition), 요약(abridgement), 결합(combination), 종합(synthesis), 재주제화(retopicalisation), 재구성(restructuring) 등의 전략이 개입되는 행위를 일컫는다(Chen 2009/2011; Lu & Chen 2011). 이와 관련, 허스티(Hursti 2001)는 뉴스 번역을 지칭할 때 번역과 편집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편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으며, 강수정(2011: 5-7)은 중국 뉴스매체의 한국뉴스 편역보도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의 뉴스 번역에서는 원문 뉴스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번역하고 가공하고 종합하는 ‘편역(edited translation)’ 현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 현재 언론사에서 널리 이루어지는 관행이라는 것이다(Chen 2009: 203).

이는 곧 뉴스 번역자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즉 개입이 허용될 뿐 아니라 요구됨을 시사한다. 가르시아 수아레즈(García Suárez 2005: 175-76, Bielsa & Bassnett 2009: 65-66 재인용)는 필요할 경우 뉴스 번역자에게는 다른 분야의 번역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의미의 수정까지도 허용되는데, 이는 번역자가 번역 업무는 물론, 기자로서 편집 업무까지 함께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즉, 뉴스 번역에서 요구되는 ST에 대한 개입은 원저자와 ST에 대한 번역자의 전통적인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뉴스 번역자는 재창조자, 작가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Bielsa & Bassnett 2009: 64; Vidal 2005: 386, Bielsa & Bassnett 2009: 57-58 재인용). 스테팅(1989, 376-77) 역시 번역자가 ‘편역자’로서 좀 더 개입적인 역할(more interventionist role)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산파(midwife)”로서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으로써 ST를 좀 더 새롭고 개선된 TT로 다시 태어나도록 한다면 번역자는 “편역자(transeditor)”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번역자가 저자(writer)에 비해 부차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번역자들이 저자와 좀 더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만족감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뉴스 번역에서 번역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번역자의 개입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경우, 뉴스 번역 현상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번역과 편집, 번역자와 기자의 업무 영역 업무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번역자들의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는 여러 건의 연구 결과(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 1981; Kukkonen 1989; Offor 1993; Vuorinen 1995; Tsai 2005 등 참고)<sup>5)</sup>를 감안할 때 이러한 관점에 기반한 연구는 뉴스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위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한영 뉴스 번역과 번역자의 개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할 때, 한국 언론사 내 한영 뉴스 번역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개입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번역학과 번역 실무는 물론, 언론학과 언론업계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5) 뷰오리넨(Vuorinen 1995: 169)은 쿠코넨(Kukkonen 1989: 3)과 오프(Offor 1993: 35)가 핀란드 통신사(Finnish News Agency, FNA) 소속 국제 뉴스 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를 인용, 응답자들이 자신의 일을 ‘번역’이 아닌 ‘편집(editing)’ 혹은 ‘외국의 소재를 기반으로 한 핀란드어 기사의 생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차이(Tsai 2005: 152)의 경우, 대만의 포모사 TV(Formosa Television, FTV)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방송사 내 뉴스 번역 과정을 소개하면서 방송 뉴스 번역자들은 직접 현장에서 기사를 취재해 보도하는 방송 기자들에 비해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편집국 내 엘리트주의에 대한 글래스고 대학 미디어 그룹(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의 논의(1981) 역시 동일하게 기자라는 직함으로 일하는 주체들 사이에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계가 있다고 밝혔다(Tsai 2005: 152 재인용).

### 2.3. 번역과 게이트키퍼 이론 관점의 뉴스 번역 전략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뉴스 번역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 연구 가운데 번역과 게이트키퍼<sup>6)</sup> 관점을 기반으로 제시된 번역 전략 범주를 활용해 텍스트 분석 틀을 구축할 계획이다. 두 가지 관점 모두 본원적 번역 외에 과감한 텍스트 개입까지 뉴스 번역 활동에 포함하면서 다양한 전략 범주들을 제시, 뉴스 번역 현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자들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텍스트 개입과 변형이라는 점에서 게이트키퍼와 번역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sup>7)</sup> 명칭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유사한 전략 범주들을 내놓았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 번역을 설명하는 데 번역 개념의 유용성을 주장한 학자들은 번역의 세부 전략으로 선택(selection), 삭제(deletion), 첨가(addition), 종합(synthesis), 요약(abridgement), 재주제화(retopicalisation), 재구성(restructuring), 결합(combination) 등을 제시하고 있다(Chen 2009/2011; Lu & Chen 2011).

게이트키퍼의 경우, 뉴스 번역에서는 기사가 선정되고 번역된 후 편집과 감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출고되는 각 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는 번역자에도 하나의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Vuorinen 1995: 167). 이러한 관점에서 뉴스 번역을 설명한 학자들 가운데 후지이(Fujii 1988)는 뉴스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이트키퍼 활동을 메시지의 양 조절, 변형, 보충, 재구성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한 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는 것이며 이를 수행하는 뉴스 번역 주체의 지위를 카피 데스크(copy desk)<sup>8)</sup>로 격상시킬 수 있다

6)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뉴스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개별 주체들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커뮤니케이션 경로에서 특정 게이트에 위치한 게이트키퍼들이 정보의 통과 여부 및 변형을 결정하는 과정을 일컫는다(Vuorinen 1995: 161).

7) 첸(Chen 2009: 204-205)은 뉴스 번역 과정은 게이트키퍼 과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허스티(2001) 역시 게이트키퍼와 번역이라는 개념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았다.

8) 카피 데스크/데스크(copy desk): 신문사나 잡지사서 취재기자들에게 취재지시를 하고 취재기자들로부터 입고된 기사원고의 내용을 검토하고 뉴스 가치를 판단하여 그 기사들을 취사선택하며 기사에 제목을 붙이고 지면을 구성하는 등의 편집업무를 총괄하는 센터. 신문사의 경우, 이러한 편집업무를 총괄은 대체로 각 부(部)의 부장이나

고 강조했다. 즉, 뉴스 번역자들이 이러한 게이트키퍼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독립적인 뉴스 생산 주체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 허스티(2001)는 어휘 차용(lexical borrowing), 패턴 전환(transfer of pattern), 삭제(deletion), 첨가(addition), 대체(substitution), (재)구성(re)organization 등을, 차이(2005)는 종합(synthesis), 재구성(reorganization), 생략(omission), 첨가(addition), 일반화(generalization) 등을 국제 뉴스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 역시 이들 전략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 3. 연구 방법

#### 3.1. 분석 대상 텍스트

본 연구는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한글 웹사이트와 영문 웹사이트에서 2012년 10월29일부터 11월25일까지<sup>9)</sup> 한국어 ST와 영어 TT 총 99건을 수집해 분석을 실시했다.<sup>10)</sup> 본 연구가 이들 세 개 매체를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모두 10년 안팎이라는 긴 기간 동안 영문 서비스를 제공해 온 만큼<sup>11)</sup> 텍스

---

차장이 많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장이나 차장을 곧 카피 데스크 또는 간단히 데스크라고 부른다(한국 언론진흥재단).

- 9)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접근 방식이 유사한 신문 내용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참고한 결과, 1개월 정도의 텍스트 수집 기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디어 텍스트 내용 분석을 위한 다수의 연구에서 표집 방법의 틀로 자주 사용되거나 인용되는 스템펠(Stempel 1952)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신문 1년 치를 6일, 12일, 18일, 24일, 48일 간격으로 추출한 5개 표본이 모두 나름대로 유효하며 12일 주기 아래서는 표본의 크기를 늘려도 표본의 정확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이시, 로빈슨과 리페(Lacy, Robinson, & Riffe: 1995), 리페, 레이시와 드래거(Riffe, Lacy, & Drager: 1996) 등의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12일 주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유재천, 김동규 2009, 177-78 재인용), 본 연구는 이를 기준으로 1년 동안의 기사를 추출할 경우 약 30일이라는 기간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 10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30일 동안을 분석 대상 텍스트 표집 기간으로 선정했다.
- 10) 수집 기간은 TT가 게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했으며 따라서 ST 게재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 11) 연구자가 각 언론사 홈페이지 및 한영 뉴스 생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 수집 대상으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가 국내 최대의 뉴스 통신사이며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국내 대표 종합 일간지임을 감안할 때 이들 매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매체 유형과 성향의 다양성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영어권 독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한국 관련 기사를 다룰 때 번역자들이 텍스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National Section(국내면)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수집했다.

### 3.2. 분석의 틀

이렇게 수집된 ST와 TT 쌍을 아래 제시된 여섯 가지 범주에 기반해 비교 분석했는데, 이들 범주는 앞서 소개한 여러 학자들의 국제 뉴스 처리 전략 가운데 유사한 부분은 통합하고 필요한 부분은 첨가해 재분류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의미가 명확한 허스티의 용어를 다수 차용하고 이 가운데 어휘 차용, 패턴 전환 등 ST의 어휘와 문법 구조를 그대로 옮기는 전략을 ‘대응역’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었다. 여기에 여러 개의 ST를 변형하고 취합해 하나의 새로운 기사를 만드는 ‘종합’을 더했다. 각 전략에 대한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sup>12)</sup>.

1. 대응역(어휘 차용(lexical borrowing)/패턴 전환(transfer of pattern)): 어휘 차용은 ST/SL 단위를 직접적으로 복제하거나 옮기면서 TL의 음운적, 형태적, 문법적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Toury 1979: 226, Hursti: 2001 재인용)을 의미하며, 패턴 전환은 문법적으로 TT의 절이나 문장의 구조를 ST의 문장 구조와 유사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삭제(deletion): 단락 전체를 없애거나 일부 문장 혹은 어휘를 삭제하는 전략으로, ST에서 삭제되는 내용의 분량은 사실의 수, 정확성의 정도, 중복되는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

연합뉴스는 2000년, 조선일보는 1999년, 한겨레는 2006년부터 자사 기사를 영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 1. 대응역-5.(재)구성의 개념 정의는 허스티(2001)와 감비에(Gambier 2006: 14)를 따르는 것이고, 5)종합의 경우 용어는 선행 연구(Cheng, 2002; Chen 2009/2011; Lu & Chen 2011)에서 차용하되, 개념 정의는 선행 연구의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자가 자체 텍스트 검토 결과에 기반해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3. 첨가(addition): 세부 사항이나 배경 정보를 추가하거나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전략 등을 포함한다.

4. 대체(substitution): 세부 내용을 덜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예. 숫자를 맨 끝자리까지 쓰지 않고 10 혹은 100단위로 끊어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인명 대신 직함이나 국적을 쓰는 방법), 내용을 요약하는 전략 등을 지칭한다.

5. (재)구성((re)organization): ST의 구조를 바꾸는 전략으로, 일부 세부 사항의 위치 변경(개별 어휘 이동, 상위 텍스트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정보 재편성)을 통해 ST와는 다른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 등이 해당된다. 이는 언어 및 수사 관행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또는 목표 독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된다.

6. 종합(synthesis): 여러 개의 ST와 다양한 자료를 편집하고 수정하고 한 데 묶어 목표 독자층의 기대와 수요에 맞는 새로운 기사를 만드는 전략으로, 삭제, 첨가, 대체, 재구성 등의 전략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 4.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여섯 가지 범주 가운데 첨가, 대체, 재구성 전략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백과사전적 배경 지식이 아니라 보도자료, 전문가나 관계자의 말,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 관련 정보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첨가하고, 기사의 관점을 바꾸거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 ST를 대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등 이들 전략을 매우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한글 기사와는 다른 영어권 목표 독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거나 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의 여섯 가지 범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좀 더 적극적인 텍스트 개입 전략이 관찰되면서 한영 뉴스 번역자의 개입 범위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했는데 이는 ‘4.7. 그 밖의 텍스트 생산 활동’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밑줄 및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각 ST에서 TT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개입이 발생한 부분이다.

#### 4.1. 대응역

ST의 어휘를 직접적으로 옮기거나 구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대응역은 일부 기사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견되었다. ST1의 “야권 단일화는 2등과 3등이 편먹어서 1등을 이기겠다는 게임논리”는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내놓은 논평을 인용한 것으로, TT1.에서도 표현과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game strategy where the second-and third-place finishers team up to beat the first-place finisher.”로 번역됐다. 논평이나 인용문이 화자의 의도나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번역자는 대응역을 선택함으로써 ST1. 속 해당 구문이 전달하는 효과를 그대로 보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ST1.

...이정현 공보단장은 29일 “야권 단일화는 2등과 3등이 편먹어서 1등을 이기겠다는 게임논리”라며 ...

여 ‘야권단일화 막아라’...연일 “반칙정치” “부실합작품” 비난(한겨레, 2012.10.29)

TT1.

Lee Jung-hyun, head of the NFP campaign’s PR office, said on Oct. 29 that the deal was a “game strategy where the second- and third-place finishers team up to beat the first-place finisher.”

Park Geun-hye concerned over possibility of single opposition candidate(한겨레 영문, 2012.10.30)

#### 4.2. 삭제

삭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는데, 주로 한국 문화사회 특수적인 명칭, 용어, 신조어, 은유, 저자 또는 화자의 특수한 표현, 세부 정보, 중복되거나 추상적인 내용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은 모두 기사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대로 번역할 경우 외국인 독자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부분으로 TT에서 사라지면서 기사의 명확성과 경제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지는 않았지만, 가치 판단이 들어간 ST의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도 발견되었다.

#### 4.2.1. 한국 문화사회 특수적인 명칭, 용어, 신조어

ST1의 ‘스펙’은 영어 단어 ‘specification’의 줄임 말로 원래는 기계 등의 사양, 설명서 등을 의미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로 흔하게 사용되는 신조어다.<sup>13)</sup> 하지만 이를 그대로 번역할 경우 영어권 독자들은 그 내포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TT1.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뛰어난 ‘영어 실력과 유학파’라는 구문만 ‘His command of English and background abroad’로 번역했다. 또, 영어 실력, 유학파가 결국 ‘스펙’의 구성 요소이므로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ST1.

…뛰어난 영어 실력과 유학파라는 ‘스펙’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올해 취업은 포기했다”며 “컴퓨터 자격증부터 다시 따려 한다”고 씩씩하게 말했다.  
외국서도 한국와도 백수…‘슬픈 리터니’ (한겨레, 2012.10.31)

TT1.

… His command of English and background abroad were not enough to earn him a new job. …(한겨레 영문, 2012.11.01)

#### 4.2.2. 은유나 저자 또는 화자의 특수한 표현

“군사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및 서북 도서(島嶼)의 군사력 배치 상태가 변하고 있다’라는 뜻을 담은 은유적 표현으로, 이를 그대로 ‘military map’ 또는 ‘defense map’으로 옮길 경우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바로 뒤에 나오는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라는 구문에 유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3) 국립국어원이 2005년 초 발간한 “2004년 신어” 보고서([http://www.korean.go.kr/09\\_new/notice/notice\\_view.jsp?idx=285](http://www.korean.go.kr/09_new/notice/notice_view.jsp?idx=285))에 수록.

TT1.에서는 “군사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표현이 사라지고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라는 구문만 “has been building up its defenses”로 번역되었다.

ST1.

2010년 11월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및 서북 도서(島嶼) 일대의 군사 지도가 바뀌고 있다.

북한은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이 일대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들이 19일 말했다. 북한은 올해 초 ...

[연평도 포격 2년] [2] 연평도 포격 도발 2년 NLL 군사지도 바뀌었다(조선일보 2012.11.20)

TT1.

North Korea has been building up its defenses near the Northern Limit Line, the de facto maritime border, in the two years since it shelled South Korea's Yeonpyeong Island in November 2010, military officers here said Monday.

Tensions High on 2nd Anniversary of Yeonpyeong Shelling (조선일보 영문 2012.11.20)

#### 4.2.3. 중복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 세부 정보

ST1.에서 “▲연예인의 의사 결정과 직업 선택 자유 제한 금지, ▲동의 없이 소속 계약을 다른 기획사 등으로 넘기는 행위 금지” 등 세 가지 세부 항목은 연예인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거나 대가 없이 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를 제재한다는 것으로, 지나치게 세부적인데다 문단 맨 앞 문장인 1)의 내용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인용된 공정위 관계자의 말은 기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나 구체적인 사실보다 해당 관계자의 막연한 기대가 담긴 부분이므로 TT1.에서는 삭제되었다.

ST1.

1)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우선 출연료 등 연예인의 활동에 의한 수입이 생기면 기획사는 돈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연예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연예인의 의사 결정과 직업 선택 자유 제한 금지 ▲동의 없이 소속 계약을 다른 기획사 등으로 넘기는 행위 금지 ▲저작권 등 각종 권리를 기획사에만 귀속시키는 것 제

한 등의 기준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여가수 성추행 등을 막기 위해 소속사들이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대로 계약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고 따로 벌칙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두 차례에 걸쳐 기획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으므로 대다수 기획사가 계약서를 고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사, 수익금 받으면 45일내 연예인에 지급”(조선일보, 2012.11.01)

TT1.

Also, the FTC made it illegal to force artists to appear at agencies' fundraisers and obliges them to pay for their services. The FTC also required talent management agencie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rtists and announce them on their web sites. This especially aims to prevent sexual and other abuses of young women.

Tighter Rules for Talent Factories(조선일보 영문, 2012.11.02)

#### 4.2.4.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된 표현

ST1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설명하면서 ‘최대한 깎아서’라는 표현을 사용, 검찰이 의도적으로 최태원 회장에게 혐의에 비해 약한 형량을 구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ST1.는 뒤 부분에서 최태원 회장과 친분이 있는 한 상대 검찰총장이 구형에 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보도 내용에 가치 판단을 담아 전달하고 있다. 반면, TT1는 이러한 구문을 삭제하고 ‘the minimum sentence that a court can give’로 번역함으로써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좀 더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ST1.

...징역 4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으로 볼 때 횡령·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법원이 최대한 깎아서 선고할 수 있는 ‘최저 형량’이다.

검찰, 최태원 SK회장에 ‘최저형량’ 징역 4년 구형 (한겨레, 2012.11.23)

TT1.

According to the standards set by the Supreme Court's sentencing committee, four years is the minimum sentence that a court can give when the amount embezzled or mishandled exceeds 30 billion won (US\$27.63 million).

SK Chairman facing minimum sentence for embezzlement (한겨레 영문, 2012.11.23)

### 4.3. 첨가

첨가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첨가 전략은 주로 사회문화 특수적 명칭, 용어, 개념이나 전후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고, 맥락 및 배경 정보 혹은 유사한 사실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데 사용됨으로써 기사의 명확성을 높이고 기사의 의의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4.3.1. 사회문화 특수적 명칭, 용어, 개념 설명

아래 예문에서 TT1.은 ST1.의 ‘국군보안사령부’라는 기관명을 ‘Defense Security Command’로 번역하고 앞에 defunct(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라는 형용사를 붙여 이 기관이 생소할 수 있는 외국인 독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했다. 단, 기관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첨가하지 않았는데, 독자들이 영문 명칭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ST1.

추재엽(57) 전 서울 양천구청장이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 시절 고문을 자행한 사실을 부인하다 피해자의 고발로 법정 구속되는 등 군사정권 당시 보안사의 간첩 조작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한 명인 구명서(61)씨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17억 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안사 고문 피해자에 17억 국가배상 판결(한겨레, 2012.11.02)

TT1.

Not long ago Chu Jae-yeop, chief of Seoul's Yangcheon district, was taken into custody for alleged involvement in torture during his tenure as an investigator with the now defunct Defense Security Command.

Court grants torture victim more than \$1 million in compensation (한겨레 영문, 2012.11.3)

#### 4.3.2. 전후 문장의 의미 설명

아래 예문은 서울지역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두발 제한 규정을 학칙에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로, ST1.은 이 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는데 그친 반면, TT1.는 직접 인용

문 앞에 ‘he maintained that schools did not have to consider the ordinance in their school rules.’라는 구문을 첨가, 발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풀어주면서 독자들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ST1.

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도 지난 18일 “시교육청의 공문 발송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라고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이 권한대행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2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학칙 제·개정 때 학생인권조례에 맞춰야 하느냐’는 질문에 “상위법인 시행령을 따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서울 중·고교 ‘두발 가위질’ 부활...인권조례 무력화(한겨레, 2012.10.31)

TT1.

Still, there were no signs of a change in stance from Lee. Indeed, at an Oct. 23 talk with reporters at the SMOE building, he maintained that schools did not have to consider the ordinance in their school rules.

When asked whether schools would have to amend their regulations to meet the terms of the ordinance, Lee replied, "The enforcement decree is the law, so they should follow the law."

Seoul schools cracking down on students' hair length(한겨레 영문, 2012.10.31)

#### 4.3.3. 맥락 및 배경 정보 제공

아래 예문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응역 후보가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해 단독으로 만난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로, ST1.은 한국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만큼 한국인들이 알만한 배경 지식은 추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번째 문단의 ‘이번 단일화 협상은 실무선의 사전 대화 없이 두 후보의 회동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2002년과 크게 다를 수도 있다’는 문장의 경우, 2002년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는 당시 사례가 현재 상황에 주는 함의나 시사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없다. 물론 독자들은 문장 자체를 통해 2002년에는 현재와 달리 실무선의 사전 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당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의 전개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TT1.은 2)와 같이 해당 문장 바로 뒤에 2002년 후보 단일



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배경 정보를 첨가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 제고를 시도했다. 아울러, ST1.에서 “2002년”이라는 단어가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점을 감안, TT1.에서는 해당 문장이 나오기 전에 1)과 같이 1997년과 2002년 후보 단일화 사례들을 열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2002년 사례와 현재 상황과의 관련성을 유추하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미리 제공하고 있다.

ST1.

...

이번 단일화 협상은 실무선의 사전 대화 없이 두 후보의 회동부터 전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2002년과 크게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6일 회동에서 단일화의 방식과 공동정부 구성안에 대해 큰 가닥을 잡아주면, 의외로 앞으로의 협상이 순조로울 수도 있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두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문재인·안철수, 6일 단들이 만난다(한겨레, 2012.11.06)

TT1.

...

1) They have to split all possible powers, including posts such as prime minister, cabinet members or party leadership. In the two precedents for unification between Kim Dae-jung and Kim Jong-pil in the 1997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single candidacy deal reached between Roh Moo-hyun and Chung Mong-joon in the 2002 election, the camps agreed to split the rights to recommend cabinet members.

Moon vowed on Oct. 22, "...

Meanwhile, things may turn out very differently from 2002 in that the two candidates have decided to jump into a meeting without prior working-level conversations. 2) In 2002, after Roh revealed his intentions to accept single candidacy on Oct. 3, working-level staff from the Roh and Chung camps were just barely able to continue their negotiations from Nov. 9. The results of opinion polls were only revealed in the early morning of Nov. 25, just two days prior to candidate registration.

Moon and Ahn will meet to discuss selecting a single opposition candidate(한겨레 영문, 1012. 11.06)

4.3.4. 출처 및 사실 관계의 명확화

아래 예문에서 ST1의 첫 문장인 리드(lead)<sup>14)</sup>는 “그리스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구문을 사용, 해당 정보가 그리스 정부로부터 온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듯 사실 ST2는 한국의 외교부 당국자로부터 들은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에 TT1은 리드에 ‘Seoul’s foreign ministry official said Tuesday’라는 부분을 첨가,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기사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 ST1의 ‘폭행당한 사건’이라는 구문은 폭행 행위가 기정사실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만, TT1은 “allegedly”라는 부사를 첨가해 해당 행위가 아직 혐의일 뿐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하면서 기사의 객관성을 제고했다.

ST1.

한국인 관광객이 그리스 경찰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그리스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그리스 주재 우리 대사가 지난 26일 그리스 경찰청장과 경찰청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인 시민보호부 장관을 만났다”면서 “시민보호부 장관이 이번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그리스 정부, 韓관광객 폭행사건 유감 표명”(연합뉴스, 2012.10.30)

TT1.

The Greek government has expressed regrets over a Korean tourist who was allegedly assaulted by police officers in Athens earlier this month, Seoul’s foreign ministry official said Tuesday.

Greece expresses regret over assaulted Korean tourist in Athens: Seoul official(연합뉴스 영문, 2012.10.30)

4.4. 대체

세부 내용을 덜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내용을 요약하는 대체 역시 자주

14) 기사 도입부인 리드는 역(逆) 피라미드 구성의 첫 머리에 해당하는 만큼 기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압축적으로 포함된다. 리드 한 줄만 써도 전체 기사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윤석홍, 김춘옥 2000: 189).

활용되는 전략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한국 사회문화 특수적인 고유명사, 개념, 용어 또는 은유나 특수한 표현을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거나, 여러 개의 구체적인 단어나 구문을 하나의 단어나 구문으로 포괄해 묶는 방식을 통해 기사의 이해도와 경제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ST의 특정 정보가 좀 더 관련성과 신뢰성이 높은 새로운 정보로 대체되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 이러한 정보는 기사, 자료 검색 등의 일반적인 경로보다 취재, 기자와의 접촉 등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것들로, 기사의 신뢰도와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4.4.1. 사회문화 특수적 고유명사, 개념, 용어

아래 TT1.은 한국 사회에서 연예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불공정 계약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ST.1의 ‘노예 계약’이라는 구문을 좀 더 일반적인 ‘cutthroat contracts’로 번역해 외국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ST1.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연예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노예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며 “이를 도입하지 않는 곳은 꾸준히 모니터링해 적극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사, 수익금 받으면 45일내 연예인에 지급”(조선일보, 2012.11.01)

TT1.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come up with regulations to prevent **cutthroat contracts** between talent agencies and their artists, it said Thursday.  
 Tighter Rules for Talent Factories(조선일보 영문, 2012.11.02)

#### 4.4.2. 은유, 구체적이거나 특수한 표현

아래 TT1.은 ST1.의 서울 중 고교, ‘두발 가위질’ 부활이라는 특수하고 은유적인 제목을 ‘Seoul schools cracking down on students’ hair length’라는 좀 더 일반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으로 대체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독자들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했다.

ST1.

서울 중 고교 ‘두발 가위질’ 부활...인권조례 무력화  
(한겨레, 2012.10.31)

TT1.

Seoul schools cracking down on students' hair length

Many middle and high schools ignoring ordinance that protects students' rights over their appearances.

(한겨레 영문, 2012. 10.31)

4.4.3. 응집성 및 관련성,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

TT1.은 ST1.의 ‘포스코, 현대그룹, 케이티(KT) 등 국내 대기업 12곳’을 ‘20 firms, including well-known hotels and big corporations involved in the resort business’로 대체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 기업의 구체적인 이름이 업종으로 바뀌고, 지원 기업 수도 대기업 12곳에서 기업 20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김 씨의 전공인 관광경영과 지원 대상 기업들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김 씨가 지원한 기업의 수가 상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대체된 내용이 ST1.에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자료 검색 등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김 씨의 개인적 정보, 즉 김 씨를 직접 취재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TT1.을 생산한 번역자는 ST1.을 작성한 기자로부터 혹은 김 씨를 직접 접촉해 해당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번역자가 수동적이고 단순한 자료 검색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나아가 독립적 뉴스 생산의 주체, 즉 편역자나 게이트키퍼로서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ST1.

영국의 한 대학에서 관광경영을 공부한 김선용(가명·27)씨는 현지 호텔에 취업하려던 계획을 지난 8월 포기했다. ...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김씨를 반기는 국내 기업도 없었다. 김씨는 올 가을 포스코, 현대그룹, 케이티(KT) 등 국내 대기업 12곳에 원서를 넣었지만 1차 서류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뛰어난 영어 실력과 유학파라는 ‘스펙’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외국서도 한국과도 백수...’슬픈 리터니’ (한겨레, 2012.10.31)

TT1.

Kim, 27, returned to Korea, but no domestic companies came calling. This fall, he sent his resume to **20 firms, including well-known hotels and big corporations involved in the resort business**, but he failed to pass through a single company's first-round document screening. ...

Youths who study overseas struggle to find work abroad and in Korea (한겨레 영문, 2012.11.01)

ST2는 국내 기업 채용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리터니들이 겪는 고충을 설명하기 위해 리터니인 이윤지 씨와 익명의 대기업 관계자 말을 인용한 반면, TT2는 이윤지 씨의 말을 두산중공업이라는 구체적인 기업 인사 담당자의 말로 대체했다. 기사 앞부분에 리터니들의 인터뷰가 여러 차례 나왔다는 점, ST1에는 인용된 대기업 관계자의 구체적인 소속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전략을 통해 TT2는 정보 출처의 다양성을 확대한 것은 물론, 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도 달성했다. 특히, 두산중공업 인사 담당자의 말은 ST2에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 경로를 통해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TT1.에서와 마찬가지로 번역자가 편역자 또는 게이트키퍼로서 적극적인 정보 수집 노력을 기울였음을 시사한다. 물론, 해당 내용이 원래 ST1에 있었으나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최종 출고된 ST1.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ST1.에 빠진 정보를 TT1.에는 포함시키기로 한 것 자체가 정보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게이트키퍼 행위인 만큼 이러한 대체 전략은 번역자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텍스트에 개입했음을 시사한다.

ST2.

**국내 기업의 취업 절차도 리터니들에게 생소하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나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지난 2월 귀국한 이윤지(가명·29)씨는 “자기소개서, 압박 면접, 인·적성 검사 등 미국과 너무 다른 채용 절차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삼성 등 일부 대기업은 영문 인·적성 검사 등 유학생 전형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리터니들에겐 인·적성 검사 자체가 낯설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분야의 많은 문제를 푸는 수능 스타일의 인·적성 검사를 리터니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서도 한국과도 백수...‘슬픈 리터니’(한겨레, 2012.10.31)

TT2.

Returnees find a chilly reception in the domestic labor market when they return. A human resources officer at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said, "While Korean graduates jump into the labor market with a grasp of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firms, returnees lack information on domestic companies due to a lack of personal network."

An HR officer at another big corporation said, "Since these days those who studied at home have a strong command of English, merely studying abroad is no longer a big advantage. The recruiting process of domestic companies is different from foreign companies, focusing on document screening and interviews. ..."

Youths who study overseas struggle to find work abroad and in Korea (한겨레 영문, 2012.11.01)

#### 4.5. (재)구성

정보의 순서나 위치를 변경하거나 문단의 구조를 재편성하는 재구성은 특정 정보를 부각시키거나 문장 혹은 문단 간 응집성을 제고하거나 ST의 관점 및 초점을 변경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다.

##### 4.5.1. 정보의 위치 변경

TT1은 ST1에 나타난 정보의 순서를 바꿔 서울시교육청의 ‘학칙 제·개정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했다’는 조사의 지시 주체에 대한 정보보다 앞에 배치했다. 이러한 전략은 조사 결과를 부각시킴으로써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정보의 출처를 해당 정보 뒤에 위치시키는 영어권의 기사 작성 관행에 부합, 목표 독자들에게 익숙한 형식의 기사를 생산해냈다.

ST1.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서울지역 초·중고 1292곳을 대상으로 학칙 제·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53.5%에 해당하는 691곳의 학칙에 두발 제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 중 고교 ‘두발 가위질’ 부활...인권조례 무력화 (한겨레, 2012.10.31)

TT1.

Findings released on Oct. 30 from a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MOE) examination of regulations at 1,292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showed 691 of them, or 53.5%, to have rules that limit the permitted length of students' hair. The examination was carried out at the dire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schools cracking down on students' hair length (한겨레 영문, 2012.10.31)

#### 4.5.2. 문단의 재편성

조선일보 영문 서비스는 아리랑 뉴스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자사 웹사이트에 싣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어, 표현, 문장이 조정되거나 기사 전체의 구조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한다. 아래 예문은 원전부품 공급업체들의 부품 품질 검증서 위조 사실이 적발됐다는 지식경제부의 브리핑에 대한 기사로, ST1.의 전체 구조가 대대적으로 재편성되면서 기사의 초점이 바뀐 사례다. TT2.는 아리랑 뉴스에 게재된 ST2.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T2.가 브리핑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조사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TT2.는 조사 결과의 파급 효과, 즉 정부의 조치(관련 부품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영광 원전 2기의 발전 정지)를 중심으로 ST2.를 재구성함으로써 보도 내용의 의의를 부각시키고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했다. 아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개입 과정에서 정보의 순서가 1)-2)-3)-4)에서 3)-1)-4)-2)로 바뀌는 대대적인 문단 재편성이 발생했다. TT2.는 또, 마지막 문단에 좀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원전 정지가 국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발전 정지로 인한 전력난 우려)에 대한 배경 정보까지 간략하게 첨가했는데, 이는 신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국내 원전들의 잇따른 정지 사태로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최근 상황과의 관련성을 높임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ST1.

1) The government has found a number of parts with false quality certificates in the country's nuclear reactors.

The parts have been in use since 2003.

In an emergency press briefing on Monday,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Hong Suk-woo, said 2) eight suppliers had faked warranties for over 7-thousand items.

Most of these items were used in the two reactors at the Yeonggwang Nuclear Power Plant, located 300 kilometers southwest of Seoul.

3) The government closed down both reactors until the end of the year.

4)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said that the parts will be tested to ensure their safety.

But he did say that there was no threat of a radiation leak, given that the parts consist of things like fuses and power switches which are unrelated to the reactor itself.

Govt. Finds Unverified Parts in Nuclear Reactors(아리랑 뉴스, 2012.11.05)

TT1.

3) Two reactors at the Yeonggwang Nuclear Power Plant in southwestern Korea have been shut down after 1) they were found to contain parts bearing forged certificates.

4)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said it will quickly replace the parts in question and conduct further investigations. It said there is no threat of a radiation leak as the parts were mostly fuses and power switches, which do not directly impact the reactor itself.

2) Eight suppliers are under suspicion of fabricating product warranties.

The shutdown raises the specter of power shortages this winter as the two reactors produce about five percent of Korea's power supply.

Reactors Shut Down Due to Forged Certificates(조선일보 영문, 2012.11.06)

#### 4.6. 종합

종합은 여러 개의 ST에서 발췌한 다양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나의 새로운 기사를 생산하는 것으로, 대응역, 삭제, 첨가, 대체, 재구성 등 앞서 살펴본 다양한 전략들이 개입될 수 있다. 종합 전략은 독자들이 여러 개의 관련 기사를 따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많은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사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낸다. 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정보를 한꺼번에 묶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응집력 있고 논리적인 기사가



생산되기도 한다.

아래 예문은 번역자가 <대선 D-50> 대선정국 4대 관전 포인트', '대선 D-52,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별 판세'. '<대선 D-50> 세대별로 본 선거 판세', '<대선 D-50> 군소후보들 변수될까'라는 네 가지 제목 아래 개별적으로 생산된 기사(ST1., ST1', ST1'', ST1''')에서 다양한 정보를 발췌해 '(News Focus) Uncertainty dominates presidential race; hopefuls vie to win over moderates'라는 제목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와 쟁점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하나의 새로운 기사를 생산한 사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번역자가 이들 ST에 존재하는 정보를 단순히 취합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네 개의 ST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사를 생산했다는 점이다.

우선, TT1.은 다루고 있는 주제 측면에서는 ST1.과 유사하지만 그 구조가 매우 상이하다. ST1.은 현재 각 후보들이 제기한 쟁점들을 주제 별로 나열하고 있는 반면, TT1.은 이를 각각 여권의 쟁점, 야권의 쟁점, 양측의 쟁점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흐름과 명확성을 제고했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삭제 혹은 통합되면서 경제성도 달성되었다. 아울러, ST.1 외에 나머지 세 개의 원문에서도 상당량의 정보를 발췌해 '지역별 판세', '세대별 판세', '군소후보의 영향' 등의 소주제 별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특히, TT1.의 리드가 이들 ST 가운데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네 가지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은 TT1.이 하나 이상의 원문을 참고하되 어떠한 ST에도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TT.의 리드는 '후보들이 한국 근현대사 관련 공방, 야권의 후보 단일화, 40대 부동층 확보 등의 현안들에 직면한 가운데 대선 정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국 근현대사 관련 공방과 야권의 후보 단일화 문제는 ST1., 40대 부동층 확보 문제는 ST1.'의 핵심 주제이며, 불확실성의 경우 이들 두 개 ST는 물론 지역별 지지율 등락, 군소후보 변수를 언급한 나머지 두 개의 ST와도 관련이 있다.

셋째로, TT1.은 ST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명료한 구조와 형태로 바꾸는 재구성, 대체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TT1.의 1)은 ST1.'의 1)과 2)에서 여섯 문단에 걸쳐 제시된 상세한 수치와 세부 내용을 대략의 범위와 포괄적 설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ST1.'의 핵심 메시지는

유지되었지만 형태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ST가 있는 그대로 존중되었다기보다 새로운 기사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 것이다.

끝으로, TT1.에는 네 개의 ST에는 없는 취재원의 말(리드를 포함해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이 다수 인용되어 있는데, 이는 번역자가 직접 해당 취재원을 접촉하거나 네 개의 원문 외의 자료 또는 기사를 참고했음을 시사한다. 즉, 번역자는 직접 취재 혹은 자체적인 자료 수집 행위라는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네 개의 ST가 전달하는 정보를 보완함으로써 자신만의 독립적인 기사를 생산해내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ST1.

<대선 D-50> 대선정국 4대 관전 포인트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심인성 이광빈 이유미 기자 = 대선 50일을 앞두고 야권의 후보단일화, ‘박정희 대 노무현’ 프레임 대결, 여야 텃밭의 표심 변화, 검증전이 4대 관전 포인트로 집약되고 있다.

◇이문안 후보단일화 될까 = 야권의 후보단일화는 여야 공히 ‘파괴력’을 인정하는 카드다. 야권은 대선의 필승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고, 여권은 승리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다.

...(중략)

◇‘박정희 대 노무현’ 프레임 = 새누리당 박 후보가 ‘박정희 정부’에, 민주당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에 정치적 뿌리를 두고 있어 두 정권을 다시 심판대 위에 올려 ‘실정’을 부각시키려는 공방전이 선거전 내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중략)

◇여야 텃밭 PK·호남표심 ‘이상징후’ = ...(중략)

먼저 PK에선 부산 출신인 문·안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박 후보는 상대적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중략)

◇여야 모두 ‘정책대결’보다 ‘검증공세’ = 이번 대선은 정책대결보다는 상호 후보검증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략)

(연합뉴스, 2012.10.29)

ST1'

<대선 D-52,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별 판세>  
 朴, 호남·충청서 뜨고..文·安, PK서 오르고  
 수도권 '시계 제로' 지지율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12·19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의 '지역 쟁탈전'을 비롯한 대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역별 지지율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중략)

◇'안갯속' 수도권 = ...(중략)

◇부산출신 文·安, PK 상승세 = ...(중략)

◇朴, 충청서 '합당효과' 누리나 = ...(중략)

◇'호남 변수' 주목..朴 상승곡선 = ...(중략)  
 (연합뉴스, 2012.10.28)

ST1''

<대선 D-50> 세대별로 본 선거 판세  
 朴, 50·60대 결집..文·安, 20·30대 결집  
 출렁이는 40대 표심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12·19 대선이 임박하면서 세대별 특정후보에 대한 쏠림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중략)

◇2030, 文·安 지지 강화 = ...(중략)

1) 박 후보와 안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박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32.9%에서 29.2%로 3.7%포인트, 30대 지지율은 34.3%에서 31.3%로 3.0%포인트 빠졌다.  
하지만 안 후보의 경우 20대에서 59.4%에서 62.8%로 3.4%포인트, 30대에서 52.5%에서 63.3%로 10.8%포인트 올랐다.  
박·문 후보의 양자대결에서도 20대의 경우 박 후보의 지지율은 38.3%에서 34.6%로 주춤했지만 문 후보의 지지율은 52.8%에서 56.7%로 상승세를 타는 모양새다.

30대에서 박 후보는 32.8%에서 34.3%로 1.5%포인트 지지율을 높였지만, 문 후보의 상승폭(49.1%→58.2%)을 따라잡지는 못했다.

...(중략)

◇장년층, ‘朴 쏠림현상’ = ...(중략)

2) ‘박근혜 대 안철수’ 가상대결에서 박 후보의 50대 지지율은 56.7%에서 63.2%로, 60대 이상 지지율은 63.5%에서 64.3%로 각각 6.5%포인트, 0.8%포인트 상승했으나 안 후보의 50대 지지율은 31.2%에서 28.7%로, 60대 이상 지지율은 25.1%에서 23.9%로 하락했다.

박·문 양자대결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이어서 50대에서 박 후보의 지지율은 55.5%에서 62.9%로, 문 후보의 지지율은 34.0%에서 26.4%로 조정됐고, 60대 이상에서는 박 후보 3.3%포인트 상승, 문 후보 4.6%포인트 하락했다.

◇40대, 대선승부 ‘열쇠’ 쥐나 = ...(중략)

(연합뉴스, 2012.10.29)

ST1”.

<대선 D-50> 군소후보들 변수될까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유력주자 3인을 제외한 군소후보들은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지만 착실히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현재 정당의 후보로 선출되거나 출마 선언을 통해 대선판에 뛰어든 군소후보는 진보정의당 심상정,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강지원, 이진개 후보 등 4명이다.

...(중략)

(연합뉴스, 2012.10.29)

TT1.

(News Focus) Uncertainty dominates presidential race; hopefuls vie to win over moderates

By Lee Joon-seung

SEOUL, Oct. 29 (Yonhap) -- *Uncertainty dominates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landscape as hopefuls are locked in a war of words over modern historical perspectives, the liberal camp running a single candidate and the need to woo moderates in their 40s, who will likely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Dec. 19 poll.*

<ST1. 발췌 부분>

\*야권의 쟁점

Political pundits said Monday that with just over 50 days to go before voters pick the country's next chief executive, candidates and parties will have to tackl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legacies of former presidents, "sovereignty" issues surrounding the de facto sea border between the two Koreas and signs of shifting support from traditional strongholds.

...(중략)

*All sides acknowledge that the impact a single liberal candidate will have on the election is great, and this will force candidates to iron out outstanding differences as soon as possible," said a political observer.*

...(중략)

\*여권의 쟁점

Saenuri has maintained that if the liberals unify simply for the sake of taking over power, it will be nothing more than old-fashioned political collusion.

...(중략)

\*양측의 쟁점

Aside from the single candidacy and past issues, contenders are gearing up to attack rivals for misconduct and activities that were illegal or questionable.

...(중략)

<ST1'. 발췌 부분>

Besides this, Park, a five-term lawmaker, is expected to redouble her efforts to hold onto voters from Bu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which have been the bastion of support for conservatives in past elections.

*"In the past, conservative candidates won 70 percent of votes cast in the two regions, but the latest polls showed Park's rating hovering at around just 50 percent with numbers for Moon and Ahn reaching as high as 40 percent," a local pollster said.*

...(중략)

## &lt;STI". 발췌 부분&gt;

Meanwhile, most political observers and party officials said that winning the support of moderates and voters in their 40s will decide this year's election.

...(중략)

1) According to local pollster Research & Research, Saenuri's popularity among people in their 50s and 60s soared to a solid mid-60 percent range, compared to the 20 percent range for both Moon and Ahn.

For the younger generation, Park's support is stuck in the low to mid-30 percent levels, compared to 50-60 percent ratings for the two liberal candidates.

...(중략)

*"Before the controversy over her father's legacy, and while she was calling for full-fledged national unity, Park scored high among people in their 40s but has since lost some ground," a pollster said.*

...(중략)

## &lt;STI". 발췌 부분&gt;

Other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presidential elections are the four minor candidates from the two progressive parties and two independents from the moderate and conservative sides.

...(중략)

(연합뉴스 영문, 2012.10.29)

## 4.7. 그 밖의 텍스트 생산 활동

분석 결과, 위의 여섯 가지 범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활동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들은 이미 존재하는 한글 기사를 ST로 활용하지 않고 번역자가 자체적인 자료 및 정보 수집 노력을 통해 생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주제는 한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기사와 유사하거나 동일하지만 정보의 출처나 수집 경로에 차이가 있었다. 종합의 경우 이미 작성된 하나 이상의 한글 기사를 ST로 활용하고 있고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이러한 기사들은 한글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중에서는 ST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종합과는 다른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 4.7.1. 자사 한글 기사가 참고한 ST를 직접 활용한 기사

아래 제시된 한글과 영어 기사 모두 한국과 태국이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무역 활성화 협력,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항공 부문 협력, 태국 내 한국계 은행 설립, 인프라사업 협력 등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목표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사가 보도 내용과 일부 정보의 출처만 같을 뿐 정보 출처의 다양성, 보도 정보의 가치, 정보 배치, 출처 명시 빈도 등의 측면에서 매우 상이하다는 점, 영어 기사의 보도 정보 내용과 논리 구조 측면에서 한글 기사보다는 청와대가 발표한 ‘한국과 태국의 공동 언론발표문’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어 기사는 한글 기사보다는 한글 기사의 기반이 된 청와대 발표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을 공동 언론발표문을 원문으로 하는 영어 TT1.와 한글 TT1.으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한글 TT1.과 영어 TT1.는 기사 가치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T1.에서 이탤릭체는 한글 TT1.에, 밑줄 및 굵은 글씨는 영어 TT1.에 반영된 부분을 나타낸다.

우선, 정보의 출처의 다양성 측면에서 영어 TT1.은 한글 TT1.은 한국과 태국의 공동 언론발표문 하나에만 의존하면서 이를 거의 그대로 옮기는데 그친 반면, 영어 TT1.은 공동 언론발표문(1)according to a joint statement, 2)the joint statement said), 양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3)Lee said during a joint news conference with Yingluck, 6)Lee told the joint news conference) 청와대 관계자의 말(4)a presidential official said), 등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출처를 인용할 경우 신뢰성, 객관성 등의 기사 가치는 좀 더 높아진다.<sup>15)</sup>

둘째, 영어 TT1.은 보도되는 정보의 가치 측면에서도 한글 TT1.과 차별된다. 영어 TT1.의 Box 1. 속 내용은 현재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태국 정부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 입찰에 대한 다양한 정보로, 한글

15) 2004년부터 매년 여러 미디어의 취재원 활용도를 파악해 ‘취재·보도의 깊이(depth of reporting)’를 조사한 ‘우수 저널리즘 프로젝트: The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PEJ)는 양질의 기사를 위해 다양한 취재원의 많은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건호 2009, 14).

TT1.은 물론 청와대 발표문에도 없는 것이다. 아울러, 수자원 관리 시스템 입찰의 중요성으로 이에 대한 태국 정상의 말 한 마디조차 상당한 뉴스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 영어 TT1.은 공식적인 발표나 기자회견 외에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얻은 정상회담 논의 내 입찰 관련 정보(4)a presidential official said, 5)Yingluck, in response, was quoted as saying), 정상회담 외의 일정(7)Lee toured the Chao Praya river and the Lad Pho canal on the outskirts of Bangkok)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과 태국 부총리의 말(8)Lee said during the tour, 9)In a briefing to Lee, a Thai deputy prime minister said) 등을 첨가함으로써 태국 정부의 입장과 양국 간 논의의 진전 상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이러한 정보가 청와대 발표문에도 없는 것이며, 인터넷 등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취재 등을 통해서만 취득 가능한 정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ox 2) 속 이명박 대통령의 기타 일정에 대한 정보 역시 청와대 발표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번역자가 기사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목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ST.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한글 TT1.은 공동 언론발표문의 어휘와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기면서 각각의 세부 목표들을 별다른 기준 없이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반면, 영어 TT1.에서는 이들 세부 목표의 우선순위, 논리적 순서 등을 기반으로 기사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한글 TT1.은 여러 가지 세부 목표를 단순히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영어 TT1.은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에 관한 예비적 협의와 공동 연구 추진을 리드로 잡고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해 기사 앞부분에 위치시킴으로써 이 내용에 독자들의 시선이 우선적으로 쏠리도록 했다. 또, 한글 TT1.에 일관성 없이 제시된 세부 목표들을 국제 부문과 관련된 무역과 항공, 국내 부문과 관련된 금융, 인프라 등의 항목으로 묶어 배치함으로써 논리적 흐름과 가독성을 제고했다.

넷째, 출처 명시시의 빈도 측면에서도 한글 TT1.과 영어 TT1.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글 TT1.이 두 번째 문단에서 출처(한국과 태국의 공동 언론발표문)를 단 한 번만 명시하고 있는 반면, 영어 TT1.은 다양한 출처를 필요할 때마다 좀 더 자주 명시함으로써 기사의 신뢰성을 높였다.



결국, 지금까지 본 연구가 살펴본 TT들이 통상 자사 생산 한글 기사를 원문으로 활용해왔던 것과 달리, 영어 TT1의 번역자는 자사 생산 한글 기사가 참고한 자료 자체를 직접 원문으로 사용해 영어로 옮긴 것은 물론, 보도 가치가 높은 정보를 첨가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진 정보를 좀 더 유기적이고 응집력 있게 재구성하는 등 ST에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ST보다 개선되고 ST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사를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T1.

한-태 공동언론발표문 2012.11.10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은 태국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의 초청으로 11월9일~11일간 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춘부리주에 위치한 왕비근위부대 보병 21연대 영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으며, 10일 정상회담 후에는 태국 국왕에 의해 건설된 싸뭏쁘라간주 소재 랏포 수로를 시찰할 예정입니다.

...(중략)

양 정상은 2013년 한-태 수교 55주년을 맞이하면서 한-태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으로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환영했으며,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2011년도 양국 교역액이 이전 해에 비해 상당히 증대된 139억불을 기록하였음을 환영하고, 2016년까지 양자 교역 300억불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추진과 무역장벽 최소화를 위한 무역경제협력행동계획(2013-2017)을 조기에 채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한-태 공동무역위원회 하에서의 양측 간 협의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요망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간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관한 예비적 협의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략)

양 정상은 양국 간 상호 방문객수가 2011년 유례없이 130만 명을 상회했음에 따라, 양국 간 항공 협상의 조기 개최가 항공부문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인원,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대 국적의 국민들과 관광객들에 대한 상호 보호를 지원하고 촉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태국 내 한국계 은행의 설립이 양국 간 투자와 교역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태국 내 다양한 인프라사업, 특히 수자원관리시스템, 고속철, 발전사업에 있어서의 양국 간 협력을 환영했습니다.

...(중략)

한글 TT1.

韓-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양국 정상회담..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협력 강화

무역장벽 해소 역점..서울·방콕에 ‘문화원’ 설립

(방콕=연합뉴스) 김중우 안용수 기자 = 한국과 태국은 9일 내년 수교 55주년을 맞아 긴밀한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태국 정부청사에서 잉락 친나왓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한-태국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태국 내 수자원관리 시스템과 고속철도, 발전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추진과 무역장벽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무역경제협력행동계획(2013~2017년)을 조기 채택하기 위해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양국 간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관한 예비적 협의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태국 내 한국계 은행 설립이 양국 간 투자와 교역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가 지난해 유례없이 130만 명을 웃돈 것을 환영하면서 양국의 항공부문 협력을 증진시켜 인원·상품·서비스의 이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중략)

(연합뉴스, 2012.11.10)

영어 TTI.

(3rd LD) Korea, Thailand agree to preliminary FTA talks, upgrade ties to ‘strategic partnership’

By Chang Jae-soon

BANGKOK, Nov. 10 (Yonhap) -- South Korea and Thailand agreed Saturday to launch preliminary talks toward a possible free trade deal as their leaders pledged to upg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a “strategic partnership.”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and Thai Prime Minister Yingluck Shinawatra reached the agreement during summit talks in Bangkok, **(중략) 1) according to a joint statement.**

“Both sides agreed to seek preliminary discussions and a joint study about forging 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 **2) the joint statement said.**

...(중략)

“I firmly believe the two countries will open up an era of higher level of cooperation,” **3) Lee said during a joint news conference with Yingluck.** “I take pride in that we were able to move bilateral relations forward and reach agreement in various areas ahead of next year's 55th anniversary of relations.”

...(중략)

Box.1

After last year's devastating floods, Thailand has been working on a massive \$11.3 billion project to build a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and Yingluck has expressed keen interest in South Korea's project to refurbish its four major rivers **...(중략)**

In Saturday's summit, Lee asked for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stressing that his country can be the best undertaker of the project as seen in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its four river refurbishment, **4) a presidential official said.**

**5) Yingluck, in response, was quoted as saying,** “In the field of water resources management, South Korea is successful in a way that needs no more words.”

“I highly commended that ...,” **6) Lee told the joint news conference.**

...(중략)

Later Saturday, **Lee toured the Chao Praya river and the Lad Pho canal on the outskirts of Bangkok** in a move seen as underlining South Korea's willingness to

share its water management experience and know-how.

“Climate is unpredictable. ... (중략),” 7) Lee said during the tour.

8) In a briefing to Lee, a Thai deputy prime minister said that rising sea levels due to climate change may raise the possibility that the Southeast Asian nation would suffer flooding more frequently... (중략)

Box2.

Lee, who arrived in Bangkok on Friday, is the first South Korean president to make an official bilateral visit to Thailand in 31 years. ... (중략)

Thailand was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dispatch troops to help South Korea ... (중략)

Thailand is the last stop of Lee's two-nation Southeast Asian trip ... (중략)  
(연합뉴스 영문, 2012.11.10)

#### 4.7.2. 타사 한글 기사 참고 후 자체 취재에 기반한 기사

다른 언론사의 한글 기사를 참고했지만 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관련 취재원에게 직접 정보를 얻는 행위를 통해 작성된 기사도 발견되었다. 연합뉴스 영문 기사인 TT1.은 연합뉴스 한글 기사 중에서는 원문을 찾을 수 없었으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 다른 언론사 기사 몇 건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TT1.이 오후 2시29분에 보도됐음을 고려할 때 이들 기사 가운데 TT1.보다 먼저 나온 ST1.(오전 11시34분 보도)과 ST1'.(오후 1시 48분 보도)을 참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TT1.은 핵심 정보(라오스 결혼비자 관련 영사에 대한 주의 조치)의 출처를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부 관계자’(a foreign ministry official who said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로 명시하고 있다. 언론 보도 관행상 자사가 취재하지 못한 정보를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할 때는 반드시 해당 언론사를 출처로 명시해야 한다<sup>16)</sup>는 점을 감안할 때, TT1.이 YTN이나 CBS의 기사에 기반한 것이라면 리드의 “A former ... certificates,” 뒤에는 “a Seoul official said” 대신

16) 미국의 뉴스 통신사인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는 기사 작성 지침을 통해 다른 언론사의 취재 기사를 보도할 때는 출처를 분명히 명시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We immediately report news from other organizations and ... We should never fail to acknowledge who did(Winkler, 2012: 4).”, “We give credit where credit is due. When another organization breaks a story, we cite it in our stories(ibid.: 25).”)

‘according to South Korean television channel YTN(또는 South Korean radio broadcaster CBS), quoting an unnamed foreign ministry official.’이라는 구문이 와야 할 것이다. 결국, TT1.의 출처 명시 방식은 번역자가 다른 기사들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외교부 관계자를 접촉해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TT1.을 생산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ST1.

외교부, 라오스 결혼비자 관련 영사에 주의 조치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지침에 어긋나게 결혼 비자를 발급한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 영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 (YTN, 2012.11.05 11:34)

ST1'.

‘라오스 결혼 비자’ 관련 영사에 주의조치  
 외교통상부는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지난해 지침에 어긋나게 결혼 비자를 발급한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 영사에게 장관 명의의 ‘주의’ 조치를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 (CBS, 2012-11-05 13:48)

TT1.

Ex-consular official in Laos warned over improperly issuing marriage visas  
 SEOUL, Nov. 5 (Yonhap) -- A former South Korean consular official in Laos has received a cautionary warning for issuing marriage visas last year to some Lao citizens even though they had no marriage certificates, **a Seoul official said Monday.**  
 The violation was discovered in a regular internal audit by the foreign ministry, ..., **the ministry official said.**  
 The consular official, whose name was withheld, ...  
 “At that time, it took six months to one year for Lao authorities to issue marriage certificates and the consular official did so to ease complaints,” **the official said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  
 (연합뉴스 영문, 2012.11.05. 14:29)

4.7.3. 자사 및 타사 한글 기사 참고 없이 단독 취재에 기반한 기사

TT1.은 자사와 타사 한글 기사는 물론, 그 밖의 지면 자료를 통해서도 원문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경우다. 기사의 내용을 볼 때 번역자가 직접 거리로 나가 관광객들을 인터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TT1.

(News Focus) S. Korea reaches landmark in number of foreign tourists  
 By Kim Kwang-tae  
 SEOUL, Nov. 21 (Yonhap) -- South Korea achieved a landmark in tourism on Wednesday by attracting more than 10 million foreign tourists this year, which industry watchers say will give a fillip to the country's tourism industry struggling amid a protracted economic slump.  
 ...(중략)  
 Wang Il is one of a growing number of Chinese tourists who choose South Korea for their overseas trips in recent years amid a boom in the "Korean Wave," known as "hallyu," in China, Japan and other Asian countries.  
 ...(중략)  
 "In the past, I was worried about North Korea, but it is not the case anymore," said Yoko Naka, a 39-year-old who works at an ophthalmic clinic in Kyoto, as she looked at a map with her seven co-workers to find a Korean restaurant for lunch.  
 ...(중략)  
 (연합뉴스 영문, 2012.11.21)

4.7.4. 한글 원문과 상관없는 별도의 업데이트 기사

중요한 사안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속보의 경우, 원문인 자사 한글 기사와 상관없는 별도의 영어 업데이트 기사가 생산되기도 했다. 일반 기사는 필요한 맥락 및 배경 정보가 모두 포함된 완결된 상태로 보도되지만, 신속한 정보 전달이 생명인 속보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만 먼저 제공되고 맥락 및 배경 정보는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처리된다. 그런데, 영어 기사의 목표 독자는 한글 기사와 다르며, 따라서 영어 기사의 업데이트에 포함되어야 하는 맥락 및 배경 정보도 한글 기사와는 달라야 할 것이다. 원문과 상관없는 별도의 영어 업데이트 기사는 이러한 목표 독자에 대한 고려 때문에 생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ST1.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유전개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ST1.'는 밑줄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 ST1.에서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정보(10억 배럴 생산 규모 유전 참여 계약 내년 중 체결 추진 소식)를 부각시키고 배경 정보(한국컨소시엄과 ADNOC 간 계약의 세부 내용)를 첨가해 재구성한 업데이트 기사다. 하지만 번역자는 ST1'.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첫 번째 영어 기사인 TT1.을 생산한 뒤 두 차례의 업데이트 기사(TT1', TT1'')를 통해 목표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TT1'.과 TT1''.의 두 번째 줄에 있는 괄호는 업데이트를 통해 어떤 정보가 첨가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ST1.과 ST1'.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역자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글 기사 독자와는 다른 영어권 목표 독자들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ST1.

李대통령, UAE 유전개발 추진 현황 점검

UAE 유전개발 현황은?

10억 배럴 생산 2013년 계약 추진

(아부다비=연합뉴스) 김종우 안용수 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유전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중략)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은 지난 3월 UAE 국영석유사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와 미개발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ADNOC는 오는 2014년 1월 광물 생산권이 만료되는 육상의 대형 생산 유전의 신규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사전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2013년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매장량이 371억 배럴로 하루 생산량이 137만 배럴에 달한다.

... (중략)

(연합뉴스, 2012.11.21 14:49)

ST1'

UAE 유전개발 '본궤도'..내년 10억 배럴 추진(종합)

李대통령, 아부다비 현지서 추진 상황 보고받아

(아부다비=연합뉴스) 김중우 안용수 기자=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개발 참가가 가시권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UAE를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유전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중략)

서문규 사장은 “UAE 유전 광구 개발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조기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석유개발의 프리미어 리그에 참여함으로써 중동지역 석유자원 확보경쟁 참여 및 탐사 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주관사인 한국컨소시엄은 지난 3월 UAE 국영석유사인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와 함께 ▲10억 배럴 생산 유전 참여 ▲미개발 3개 광구 개발 ▲한-UAE 원유 공동비축 계약 등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는 2014년 1월 광구 생산권이 만료되는 대형 육상 생산 유전의 신규 계약을 2013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7월15일 이를 위한 사전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매장량이 371억 배럴로 하루 생산량이 137만 배럴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10억 배럴 규모의 유전 생산에 참여할 계획이다.

.. (중략)

(연합뉴스, 2012.11.21 15:32)

TT1.

S. Korea expected to sign contract to take part in massive oil development project in UAE

(연합뉴스 영문 2012.11.21 16:10)

TT1'.

(LEAD) S. Korea seeking to sign contract to take part in massive UAE oil development project (ATTN: UPDATES in last 11 paras with Lee's summit with UAE president, background)

(연합뉴스 영문2012.11.21 18:00)



TT1".

(2nd LD) S. Korea seeking to sign contract to take part in massive UAE oil development project (ATTN: UPDATES in paras 14-15, 17-19 with quotes, meeting with crown prince, other details)

(연합뉴스 영문, 2012.11.22 02:30)

## 5. 결론

### 5.1. 연구 결과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분석 대상 한영 뉴스 텍스트 번역자들은 대응역이나 삭제 전략보다는 첨가, 대체, 재구성 전략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들 전략을 매우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즉, 단순히 백과사전적 배경 지식을 첨가하거나 정보의 위치를 변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도자료, ST에 없는 전문가나 관계자 코멘트와 같이 매우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관점의 기사 생산을 위해 ST를 대폭 변형하는 등 텍스트에 상당히 과감하게 개입하고 있었다. 종합 전략에서도 단순히 여러 개의 ST를 발췌해 하나의 기사 안에 물리적으로 배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들을 TT의 관점에 맞게 대대적으로 재구성하고 변형함으로써 ST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사를 생산하기도 했다. 이는 한영 뉴스 번역자들이 본원적 번역을 넘어서 목표 독자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우 과감하고 적극적인 텍스트 개입에 나서고 있음을, 나아가 편역자 또는 게이트키퍼로서 뉴스 생산 과정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로, 위의 여섯 가지 범주, 즉 기존에 제시된 국제 뉴스 번역 전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전략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전략은 특정한 ST에 의존하지 않고 번역자의 독립적인 취재 활동이나 자료 수집 행위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그 결과 ST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거나 ST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독립적인 텍스트가 생

산되었다. 이는 현재 이들 한영 뉴스 번역자들이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수준 이상으로 과감하게 텍스트에 개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로, 본 연구는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텍스트 생산 활동, 즉 번역자들이 자체적인 취재 활동과 자료 수집 행위에 기반해 독립적인 기사를 생산하는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 ‘(재)창조(re)creation’라는 용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번역의 경우, ST에 대한 과감한 변형과 수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번역자들이 수행하는 적극적인 텍스트 개입 활동을 아울러 설명할 수 있지만, 여전히 ST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들 활동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재)창조(re)creation’라는 용어와 개념을 염두에 두고 뉴스 번역자들의 활동을 고찰할 경우, 좀 더 현실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로, 이러한 ‘(재)창조(re)creation’ 활동은 한국의 언론사 내 한영 뉴스 생산 과정에서 번역자들의 업무 영역이 취재나 원문 기사 작성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술 발달과 언론사 간 경쟁 심화로 번역자에게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면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영 뉴스 번역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번역사들과 이러한 번역사들을 교육해야 하는 교수자들에게 변화하는 실무 환경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다.

##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한영 뉴스 번역에 초점을 맞춘 드문 시도라는 점에서 번역학 내 연구의 양적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한국 언론사가 제공하고 있는 한영 뉴스 번역의 텍스트 개입 양상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과감한 텍스트 개입 활동을 발견하고 ‘(재)창조(re)creation’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국제 뉴스 생산 과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한영 뉴스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뉴스 번역에 관심 있는 번역자들과 시장에서 실제로 원하는 번역자를 양성해야 하는 교수자들에게는

실무 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와 대비책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언론사에는 다른 언론사의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사 대상 언론사가 3개사에 그쳐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과 타당성이 제한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라 하겠다. 아울러, 번역자의 활동을 고찰함에 있어 텍스트 내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텍스트 외적 요인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정 전략이 선택된 이유, 번역자들의 역할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연구를 위해서는 각각의 번역 전략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 외적 요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번역자, 기자, 에디터 등 한국 언론사의 한영 뉴스 번역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 실시, 번역할 기사 선정, 편집 및 감수, 출고 등 뉴스 번역 단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뉴스 텍스트로 코퍼스를 확대하고, 뉴스의 종류(스트레이트 기사, 기획 기사, 인터뷰 기사, 사실), 매체의 특성(통신사, 신문사, 방송사), 매체의 성향(진보, 보수, 친정부, 친기업), 번역자의 배경 및 조직 내 직함 등 좀 더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전략을 분석할 경우, 번역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요인들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또, 번역자 개입이 기사 품질에 미친 효과를 뉴스 가치, 기사 작성 원칙 등 언론학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기사 가치 측정 지표에 기반해 파악하거나 독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번역학과 번역 업계는 물론, 언론학이나 미디어업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영한 번역자의 텍스트 개입 양상과 비교하거나 통시적 접근을 통해 번역자들의 개입 양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영 뉴스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이라는 환경이 번역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 참고문헌

- 강수정 (2011) 「중국 뉴스매체의 한국뉴스 편역보도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 연구』 15(1): 1-27.
- 강수정 (2013) 「방송뉴스 번역 양상에 관한 연구: CCTV4 <금일아주>의 한국 뉴스 번역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7(1): 1-26.
- 김관규, 김충식 (2009, 6월) 「미디어 융합 시대의 한국과 일본 신문사 편집 국 조직변화 비교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 자료.
- 김영주 (2005) 「신문 산업의 위기와 사업다각화: 신문사의 뉴미디어 사업진출 현황과 의미」, 『관훈저널』 95: 11-9.
- 박미정 (2011) 「인터넷 신문 국제기사 한일번역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통번역학연구』 14(2): 107-30.
- \_\_\_\_\_ (2013a) 「신문사의 이데올로기와 헤드라인 번역: 한일번역과 한영번역 비교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7(3): 231-51.
- \_\_\_\_\_ (2013b) 「이데올로기 프레임으로 재생산되는 뉴스담론과 번역에 관한 일고찰: ‘NLL논쟁’에 대한 진보대립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어 문학』 59: 57-86.
- 박정래 (2005) 「신문 산업의 위기와 사업다각화 -대안인가, 미래인 미디어의 준비인가?」, 『관훈저널』 95: 21-32.
- 신진원 (2013) 「신문사설 번역에서의 헤지 표현 연구: 한/영/영-한 번역에서의 태도전이를 중심으로」, 부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재천, 김동규 옮김 (2009) 『매스미디어 연구방법론』. 서울: 한경사. (Wimmer, Roger and Dominick, Joseph (2006)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8th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 윤석홍, 김춘옥 (2000) 『신문과 방송, 취재와 보도』, 서울: 나남출판.
- 이계연 (2012) 「한국어-아랍어 번역의 결속구조 연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미경 (2011) 「도착언어 독자 지식을 고려한 뉴스번역 전략: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언어연구』 28(2): 385-404.
- 이주리아(2010) 「한국어와 일본어 기사문의 응결장치 분석과 번역 -인물주제어

와 지시어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9: 375-400.

\_\_\_\_\_ (2012) 「한일 번역의 양태 표현(modality) 연구: 신문 사설의 코퍼스 분석을 통하여」, 『번역학연구』 13(5): 175-96.

이호봉 (2013) 「스포츠 기사문 한중번역의 오역사례 연구」, 부산: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동희 (2008) 「언론사의 재무분석과 언론외적 사업 영역을 통한 수익성 개선 방안: 주요 일간 신문사를 중심으로」, 대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정민 (2013) 「한국 언론사 내 한영 뉴스 번역사들의 역할과 지위: 번역사 가시성 및 번역사에 대한 문화기술적 접근」, 정호정(편저), 『통번역학 연구 현황과 향후 전망 1』, 서울: 한국문화사, 241-85.

황은하 (2013) 「말뭉치에 기반한 한중 뉴스표제의 문장부호 번역 연구」, 『번역학연구』 14(2): 283-311.

Bassnett, Susan (2004) ‘What Exactly Did Saddam Say?’, *The Linguist* 43(6): 176-78.

Bielsa, Esperanca and Susan Bassnett (2009) *Translation in Global New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hen, Ya-mei (2009) ‘Quotation as a Key to the Investigation of Ideological Manipulation in News Trans-Editing in the Taiwanese Press’, *TTR* 22(2): 203-38.

Chen, Ya-mei (2011) ‘The Translator’s Subjectivity and its Constraints in News Transediting: A Perspective of Reception Aesthetics’, *Meta* 56(1): 119-44.

Cheng, Maria (2002) ‘The Principles and Strategies of Trans-editing for the News Media’,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7: 113-34.

Fujii, Akio (1988) ‘News Translation in Japan’, *Meta* XXXIII(1): 32-37.

Gambier, Yves (2006) ‘Transformations in International News’ in Kyle Conway and Susan Bassnett (eds.), *Translation in Global New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Warwick, 23 June 2006, Warwick working papers*, Coventry, UK: University of Warwick Centre for Translation and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9-21.

García Suárez, Pablo (2005) ‘Noticias de agencia: algunos problemas

- planteados en la traducción español-árabe', in Carmen Cortés Zaborras and María José Hernández Guerrero (eds.), *La traducción periodística*, Cuenca: Ediciones de la Universidad de Castilla-La Mancha, 175-97.
- 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 (1981) *Bad News*, London: Routledge.
- Hursti, Kristian (2001) 'An Insider's View on Transformation and Transfer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 English-Finnish Perspective', *The Electronic Journal of the Department of English at the University of Helsinki*, 1. Retrieved September 11, 2012, from [http://www.eng.helsinki.fi/hes/Translation/insiders\\_view1.htm](http://www.eng.helsinki.fi/hes/Translation/insiders_view1.htm)
- Kukkonen, Tiina (1989) 'Translatorinen Ja Journalistinen Toiminta Suomen Tietotoimiston Ulkomaantoimituksessa', Unpublished MA thesis, Tampere: Department of Translation Studies, University of Tampere.
- Lacy, Stephen, Robinson, Kay, and Daniel Riffe (1995) 'Sample Size in Content Analysis of Weekly Newspaper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2(2): 336-45.
- Lu, Guang-hui and Ya-mei Chen (2011) 'The Mediation of Reader Involvement in Soft News Transediting', *Translation & Interpreting* 3(2): 48-66.
- Offor, Marja-Riitta (1993) 'Kulttuurispesifinen Adaptaatio Utissahkeiden Kaantamisessa', Unpublished MA thesis, Turku: Department of Translation Studies, University of Turku.
- Riffe, Daniel, Lacy, Stephen, and Michael Drager (1996) 'Sample Size in Content Analysis of Weekly News Magazin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3(3): 635-44.
- Stempel, Guido (1952). 'Sample Size for Classifying Subject Matter in Dailies', *Journalism Quarterly* 29: 333-34.
- Stetting, Karen (1989) 'Transediting - A New Term for Coping with the Grey Area between Editing and Translating', in Graham Caie, Kirsten Haastруп, Arnt L, Jakobsen *et al.* (eds.), *Proceedings from the Fourth Nordic Conference for English Studies*, Copenhagen: Department of English, University of Copenhagen, 371 - 82.

- Toury, Gideon (1979) 'Interlanguage and its Manifestations in Translation', *Meta* 24(2): 223-31.
- Tsai, Claire (2005) 'Inside the Television Newsroom: An Insider's View of International News Translation in Taiwan',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5(2): 145-53.
- Valdeon, Roberto Antonio (2005a) 'The Translated Spanish Service of the BBC',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6: 195-220.
- \_\_\_\_\_ (2005b) 'The CNN en Espanol News', *Perspectives* 13(4): 255-67.
- Vidal, Jose Manuel (2005) 'Algunas Vivencias de un Traductor de Prensa', in Carmen Cortés Zaborras and María José Hernández Guerrero (eds.), *La traducción periodística*, Cuenca: Ediciones de la Universidad de Castilla-La Mancha, 379-90.
- Vuorinen, Erkka (1995) 'News Translation as Gatekeeping' in Mari Snell-Hornby, Zuzana Jettmarova, and Klaus Kaindl (eds.),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61-71.
- Winkler, Matt (2012) *The Bloomberg Way: a Guide for Reporters and Editor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디비피아. <http://www.dbpia.co.kr/>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 한국 언론진흥재단. <http://www.kpf.or.kr/>
- 한국 ABC협회. <http://www.kabc.or.kr/>

[Abstract]

## A Study on Textual Intervention in Korean-to-English News Translation

Hong, Jungmi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extual intervention of translators in the process of Korean-to-English news translation in an attempt to gain a clue to the news translators' interventionist role as gatekeeper or transeditor, and therefore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of the relevant services in South Korea.

A total of 99 Korean source texts(STs) and English target texts(TTs) were analyzed based on six categories of news text processing strategies proposed by previous studies: literal translation(lexical borrowing, transfer of pattern), deletion, addition, substitution, (re)organization, and synthesis. Using these categories as a framework, the textual analysis revealed three major findings as follows:

First, rather than simply adding encyclopedic knowledge and changing the location of sentences or paragraphs, Korean-to-English translators make use of comments from relevant experts and officials or information in the press releases which are not found in the STs, or drastically revamp the structure and focus of the STs. By actively transforming texts like this, the Korean-to-English news translators played a very interventionist role as independent gatekeeper or transeditor in the news text processing process.

Second, some activities which are not categorized by the above-mentioned six strategies were also found to hint at to what extent the news translators are intervening texts in the Korean-to-English news production. All of the activities are based on translators' independent reporting or data collection efforts, and result in TTs which are totally different from or without STs, indicating the



translators are intervening texts much more actively and dramatically than previous studies suggested. To explain the newly-found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re)creation' as another category of news text processing strategy.

Finally, the '(re)creation' activities are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amid increasingly competitive media market environment, ultimately requiring more and more interventionist role to Korean-to-English news translators.

▶ Key Words: Korean-to-English news translation, translators' intervention, news translation strategies, addition, (re)organization

홍정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과정

drew97@naver.com

관심 분야: 제도번역, 뉴스번역, 번역 실무 교육

논문투고일: 2014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12일